

삼표그룹, 겨울 맞아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전달

서울·삼척서 연탄 1만1500장 전달

삼표그룹이 겨울을 맞아 서울과 삼척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1만1500장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삼표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일대를 찾아 '삼표가 그린 따뜻한 겨울, 연탄나눔 봉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계열사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임직원 60여 명이 14가구에 연탄 28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나머지 연탄 7200장은 성북구청을 통해 정릉동 일대에 사는 저소득가정 36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산업 몰탈부문 최장현 상무는 "혹한의 추위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삼표가 전달한 연탄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표시멘트 임직원들도 지난 1일



강원도 삼척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을 찾아 연탄 1500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삼표그룹은 창립기념일인 12월 1일을 전후해 매년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연탄을 매개로 한 봉사활동은 과거 삼표그룹의 전신인

강원그룹이 '삼표연탄'으로 전국민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삼표는 연탄나눔 봉사 외에도 '장학재단 운영', '친환경 미술캠프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혁신 신약의 조건



기지수첩

이세경 (유통&라이프부)

"정부가 언제 우리 편인 적이 있나." 최근 한 제약사 직원의 한숨에 2012년이 오버랩됐다. 기자가 제약업계를 처음 담당했던 그 해에도 약가인하는 최대 이슈였다. 보건당국이 보험 재정 악화를 근거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인하하는, 유례없는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았던 때다.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복제약(제네릭)과 리베이트 만으로 영업했다는 질타가 되돌아왔다. 약가는 예정대로 낮아졌고, 제약사들은 수년간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6년 만에 돌아온 업계 분위기는 달랐다. 2015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을 시작으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성과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근 유한양행은 1조4000억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11월 한달 기술수출 금액만 2조8770억원, 올 한해 성사된 기술이전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약가 정책은 여전히 제약사 편이 아니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제네릭 최고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였던 제네릭의 최고가 기준을 낮춰 제네릭 출시를 줄이고 보험재정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신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혁신신약우대제도 개정안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획기적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의약품(EMA) 신속심사 적용' 항목이 신설됐다. 혁신신약으로서 약가를 우대 받으려면 해외에서 먼저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내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어느 나라가 인정해주겠나"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신약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으로 탄생한다.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혁신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 국내 약가는 현재 OECD국가 평균 40%에 그친다. 글로벌 약가 역시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낮은 약가가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과 한달 전, 포럼에 참석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허가 받은 신약들이 해외에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진심은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묻고 싶다. /seilee@metroseoul.co.kr

LS전선 사보 '오픈마인드' 특별부문 대상

LS전선은 사내보 오픈마인드(Open Mind)가 한국사보협회의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특별부문 대상(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오픈마인드는 매달 현장의 고민들을 담은 특집 주제를 선정해 임원부터 생산직, 신입사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경영층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격려와 공감을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워크 다이어트, 회의·보고, 워라벨, 회식 등 일 문화 개선과 밀레니얼 세대, 요즘 팀장 등 계층별 고민들을 특집 주제로 다뤄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1962년 설립된 LS전선은 1975년부터 40년 동안 매월 사보를 제작, 이번 달 통권 517호를 발행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가 인프라 사업에 기여해 온 전선업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사보가 임직원들이 서로 경



LS전선 사보 이미지.

/LS전선

험을 나누고 동료애를 느끼는 '열린 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0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깨뜨리 도움을 받겠다. 60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72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이 필요. 8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 소** 49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6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73년생 장성의 방향인 서쪽으로 가면 귀인 상봉. 85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자.
- 호랑이** 50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62년생 하나를 투자하고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74년생 신세 져던 사람이 빛을 갈려온다. 86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 토끼** 51년생 자신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함구. 63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 않으니 중심을 잘 잡자. 75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준비. 87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주도 있다.
- 말** 52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 오니 근심이 생긴다. 64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귀서 돌아오니 이득. 76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88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
- 뱀** 5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5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함을 명심. 77년생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 낸다. 89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말** 54년생 농친 고기를 아끼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8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0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 양** 55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67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은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79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91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 원숭이** 56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8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할 줄 알아야. 80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9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 닭** 5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69년생 병원을 천상(天降) 방향인 동남쪽에 가서 찾아보라. 81년생 고랑 치고 가재 잡는 날. 93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이란 걸 명심.
- 개** 58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고만해질까 우려. 70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위로를 준다. 82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94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귀인이다.
- 돼지** 5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83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95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수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5		6		
1	6		8		2	3		
			4			7	1	
3	7		4					
		9		7		1		
				5		4	7	
2	3			1				
		5	8		2		1	3
7		4				9		

	1			8	7			6
	7	2			9	5		
		6						
				6		3	9	4
6		1	7	9				8
	5				2	1		
	2	4		8	6			7
		8			3		6	2

스도쿠 정답

2	9	6	8	5	7	1	4	
1	6		8		2	3		
			4			7	1	
3	7		4					
		9		7		1		
				5		4	7	
2	3			1				
		5	8		2		1	3
7		4				9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영상시대 도화는 좋은 사주

입신양명은 유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 입신양명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후세까지 이름을 날리는 것을 말한다. 옛날엔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게 출세였다. 자리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얻어지는 사회적 권력과 금력을 가질 수 있었다. 요즘도 관가의 높은 벼슬이나 직장의 높은 자리가 권력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은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한 요즘은 영상 시대이다. 영상시대에는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를 선호한다. 영상에 많이 나올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도 상위권에 오른다.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이나 예능인들이 대중의 스타가 된다. 스타는 수많은 팬들을 끌고 다니고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요즘은 이렇게 영상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권력자인 셈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주에는 도화가 있다. 도화 사주는 이성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예전에는 도화를 복잡한 이성관계라고 인식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다. 현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도화가 출세의 사주가 되는 시대이다. 딸 사주에 도화가 있다며 걱정하는 엄마가 상담을 청한 적이 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엄마에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요즘은 도화의 시대입니다.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잘 사귀며 남들의 시선을 끌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죠. 영상매체에 빈번히 나오는 연예인들을 누구나 부러워하지요. 사회적 명성도 얻고 수입도 많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도화 사주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일러줬다. 그것은 딸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과 인성을 쌓지 않고 단순히 남의 관심을 받는 것에만 매달린다면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위신을 추락시킬 것이고 그때는 도화가 오히려 인생의 화로 변할 수 있다. 자기의 사주와 운세를 운용할 줄 알면 작던 큰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을 거둘 것이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주의 호 불호가 달라지니 옛 생각에 얽매어 무조건적으로 도화 사주를 좋다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8호